

Longitudinal Effect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Life in Adolescence

Song, Hong-Jun¹⁾ (Namseoul University)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of longitudinal effect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life in adolescence. The transition period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focused on rapid physical, mental and social changes and developmental period, from the six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o the second grade of middle school. This study investigated the gender differences among adolescents in transition in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influencing factors.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parental attachment trajectory showed increasing in the number of years between sixth grade of elementary and second grade of middle school but there is not on individual differences. Second, bullying victims show a significant decreasing trend from the six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o the second grade of middle school. Third, academic accomplishment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with increasing grade from sixth grade of elementary to second grade of middle school. Fourth, school adaptation showed a significant decreasing trend from the six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o the second grade of middle school as the grade increased. Finally, the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bullying, academic achievement, and school adaptation on adolescent in transition of life satisfac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on the intercept of academic achievement and school adaptation.

Key Words: life satisfaction, parent attachment, bullying victims, academic accomplishment, school adaptation

1) Corresponding Author: Namseoul University, Daehak-ro 91, Seonwhan-eub, Seobok-gu, Cheonan (31020) /
E-mail: shj-68@nsu.ac.kr
Received: April 05, 2018 / Revised: May 13, 2018 / Accepted: May 22, 2018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종단적 효과분석 : 초등학교 6 ~ 중학교 2학년을 중심으로

송홍준¹⁾ (남서울대학교)

< 요약 >

본 연구는 청소년 시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 영향요인을 찾아 각각의 영향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청장년기로 이전되는 시기이자 급속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변화와 발달시기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와 영향요인 변화 간 종단적 관계에서 남·녀 청소년간의 성별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애착외상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기 3년 동안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미 하게 증가하는 변화양상을 보였고,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3년간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둘째, 집단 괴롭힘 피해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미 하게 감소하는 변화양상을 보인다. 셋째, 학업성취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미 하게 감소하는 변화양상을 보였다. 넷째, 학교적응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미 하게 감소하는 변화양상을 보였다. 다섯째, 청소년기 부모 애착외상, 집단 괴롭힘 피해,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이 삶의 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은 학업성취 초기치와 학교적응 초기치가 각각 삶의 만족도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뿐이었다.

주요어 : 삶의 만족도, 부모애착외상, 집단 괴롭힘, 학업성취, 학교적응

1) 교신저자: 송홍준, (3102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학로 91 남서울대학교, / E-mail: shj-68@nsu.ac.kr
논문투고: 2018. 04. 05 / 심사일자: 2018. 05. 13 / 게재확정일자: 2018. 05. 22

I. 서론

인간의 생애 주기에서 행복은 궁극적 목표이며 삶의 본질적 소망이다. 그런 만큼 행복 또는 삶의 만족도는 철학, 심리학, 인류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관심과 탐구대상이 되어 왔다. 연구자 관점에 따라 삶의 질,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는 삶의 만족도(김신영, 백혜정, 2008; Fiorezo, Susanna, Emma, Angela, & Roberto, 2015)는 자기 삶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내리는 주관적, 인지적 평가(Fujita & Diener, 2005)로써 1990년대 긍정심리학의 영향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영민, 임영식, 2013). 삶의 만족도에 대한 초기의 많은 연구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으나(Veenhoven, 1998), 최근 10여 년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Lyons, Huebner, Hills, & Horn, 2013). 청소년기는 청소년들에게 성장의 기회임과 동시에 어려움과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엄선영, 이장이, 2012). 청소년기는 청소년들에게 성장의 기회임과 동시에 어려움과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청소년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엄선영 · 이장이, 2012).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 변화양상과 그 변화의 개인차를 밝혀내는 데 있어 동일한 대상을 반복 측정하는 종단적 연구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청소년의 종단 주기는 4학년부터 6학년 까지를 초기 청소년기, 7학년부터 9학년까지를 중기 청소년기,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를 후기로 나누었다(Oberle, Schonert-Reichl, & Zumbo, 2011). 청소년 삶의 만족도 변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체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삶의 만족도는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윤희, 김현숙, 2016). 최유선과 손은령(2015)은 ‘삶의 만족도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라고 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 삶의 만족도 변화양상을 탐색한 김윤희와 김현숙(2016)의 연구에서도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4, 5, 6학년보다 중기 청소년기인 중학교 1학년, 3학년의 삶의 만족도가 더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콩에서 실시한 15세부터 3년간 청소년 삶의 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연구에서도 연령 증가에 따라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감소하였다(Daniel, 2014).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와는 달리 중학교 2학년부부터 5년간 청소년 삶의 만족도 변화추이를 분석한 김영민, 임영식(2013)의 종단연구는 중학교 2학년부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삶의 만족도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중학교 3학년부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유의미 하게 감소하며, 고등학교 2학년부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유의미 하게 증가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특성, 객관적 삶의 조건, 여러 생활 영역 등에 대한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만족감(유수철, 최희철, 2006; 정순돌, 이선희, 2011; Young, 1990), 안녕감(김지현, 2012; Findfgeld, 2004; Medly, 1976), 사회환경과 상호작용(양옥경, 2006; 이용표, 최희수, 박정임, 2001), 안정감(한형수, 2008)들을 다루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가 관심을 갖는 변인은, 청소년기 특성상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되는 부모 애착외상, 집단 괴롭힘, 학업성취, 학교적응 등의 영향요인들이다(Ashley, Lewis, & Scott, 2011; Bettina & Casba, 2010; Carmel & John, 2009). 이러한 영향요인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를 살펴봄에 있어서 이 시기는 애착의 대상이 부모, 또래집단, 교우, 교사 등으로 확장되면서 애착대상과의 부정적인 관계로 인한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상급학교인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학업성취가 보다 중요해지며, 학교환경도 확연히 다르게 바뀌면서 학교적응의 양상도 새롭게 변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Bryant, 1982).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은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 가운데 부모 및 또래와의 관계를 주목해왔다. 그 이유는 부모 및 또래관계가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발생하는 부모 학대와 집단 괴롭힘은 그 자체가 트라우마(외상)라 할 수 있는데(Seeds, Harkness, & Quilty, 2010), 부모 학대와 집단 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은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약물 남용 및 의존, 청소년 비행, 조기 임신, 학교 중퇴, 실업, 신체건강 문제 및 관계장애 등 부정적인 발달 위기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Cicchetti & Toth, 2005; Simpson & Miller, 2002; Sourander et al., 2007).

부모애착, 부모 애착외상 등 부모관계가 청소년기 전연령대 삶의 만족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첫째, 부모 및 또래와의 관계를 주목해왔다. 그 이유는 부모 및 또래관계가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발생하는 부모 학대와 집단 괴롭힘은 그 자체가 트라우마(외상)라 할 수 있는데(Seeds, Harkness, & Quilty, 2010), 부모 학대와 집단 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은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약물 남용 및 의존, 청소년 비행, 조기 임신, 학교 중퇴, 실업, 신체건강 문제 및 관계장애 등 부정적인 발달 위기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Cicchetti & Toth, 2005; Simpson & Miller, 2002; Sourander et al., 2007).

둘째, 집단 괴롭힘 이다. 발달단계상 청소년기는 대부분의 시간을 또래집단과 함께 보내며 친구들 사이에서의 인정과 수용 및 평가 등에 더 영향을 받는다(정옥분, 2016). 많은 선행연구는 또래관계가 청소년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박병선, 배성우, 2012; 조성연, 김혜원, 김민, 2011). 집단 괴롭힘을 경험하는 것은 집단내에서의 지위 박탈, 자아정체감 손상 등의 악영향을 미쳐 청소년의 행복감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Goswami, 2012), 우울, 자살생각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김재엽, 이근영, 2010; 최수미 외, 2012)과 비행, 일탈 등 문제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rseneault, Bowes, & Shakoor, 2010).

셋째, 학업성취도이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모두 학업성취(성적)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강명희, 유영란, 유지원, 2014; 박영신, 김의철, 2015). 최근 청소년기 학생은 높은 수준의 강도 높은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학업성취에 압박을 받고 있고 있어(Caprara, Barbaranelli, & Steca, 2008; Kirkcaldy et al., 2004) 학업성취도는 학생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학업성취도는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

넷째, 학업성취와 상관관계가 높은 학교적응을 들 수 있다(계선자, 이정우, 김명자, 박미석, 유을용, 2001; 조아미, 신태수, 2012). 청소년이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므로 학교적응은 중요하다. 특히 익숙했던 초등학교를 떠나 상급학교인 중학교로 학교가 바뀌게 되는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은 중요한 발달과업이다(조운숙, 이경남, 2010). 청소년의 학교적응 추세에 관한 종단연구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을 탐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전되는 시기이자 급속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변화·발달시기인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시간 흐름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및 청소년 삶의 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분석을 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사이의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들의 종단적 효과분석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애착외상, 집단 괴롭힘 피해,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기 부모 애착외상, 집단 괴롭힘 피해,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의 초기치와 변화율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

료 중 초4 패널의 3차~5차년도(초 6~중 2)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초4 패널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3차 시점부터 중학교 2학년이 되는 5차 시점까지의 3개년도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 2012년~2014년) 자료를 선택했다. 이 자료를 이용한 이유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되는 과정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발달단계와 발달환경을 경험함으로써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 변화양상과 관련변인들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표 1> KCYPS의 초4 패널 데이터 구축현황

구 분	초 4	초 5	초 6	중 1	중 2
	w1시점	w2 시점	w3 시점	w4 시점	w5 시점
원표본 또는 조사성공 표본(명)	2,488	2,640	2,447	2,221	2,213
원표본유지율(%)	100	95.2	93.3	88.0	87.1
조사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 측정도구

가. 삶의 만족도 척도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김신영 외(2006)의 척도를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주관적 안녕감으로 접근한다. 주관적 안녕감은 사회속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의미에서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검사결과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초4 패널 3차년도(2012년), 4차년도(2013년) 및 5차년도(2014)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삶의 만족도 문항은 ‘나는 사는 게 즐겁다(즐거움)’,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걱정없음)’,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행복)’ 로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Seligman, 2002). 각 문항의 응답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까지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각 문항들의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 변인에 대한 신뢰도(Cronbach α) 분석 결과, .80 이상의 높은 내적일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래 <표 2>는 청소년 삶의 만족도 척도를 나타낸다.

<표 2> 청소년 삶의 만족도 척도

변인	문항수	Cronbach α		
		초 6(w3)	중 1(w4)	중 2(w5)
삶의 만족도	3	.878	.865	.876

나. 부모 애착외상 척도

부모 애착외상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손석한, 노경선, 허묘연(2001)과 김세원(2009)의 척도를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초4 패널 3차년도(2012년), 4차년도(2013년) 및 5차년도(2014) 자료를 활용하였다. 부모애착 외상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기통제력에 악영향을 미쳐 신체적, 정서적, 성적어려움을 겪는 상태이다(Allen & Miga, 2010). 문항은 부모님은 ‘다른 일(직장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등 방임을 물어보는 문항 4문항과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등 학대를 물어보는 문항 4문항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까지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들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애착외상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도록 하였고, 이를 위해 몇몇 문항을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모 애착외상 변인에 대한 신뢰도(Cronbach α) 분석 결과, .734~.855로 신뢰할 만한 내적일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3> 부모 애착외상 척도

변인	문항수	Cronbach α			
		초 6(w3)	중 1(w4)	중2 (w5)	
부모 애착 외상	방임	4	.814	.774	.734
	학대	4	.884	.867	.878

다. 집단 괴롭힘 피해 척도

집단 괴롭힘은 또래간 벌어지는 싸움과 구분하여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Smith, Sharp, 1994)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집단 괴롭힘 피해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초4 패널 3차년도(2012년), 4차년도(2013년) 및 5차년도(2014) 자료를 활용하였다. 집단 괴롭힘 피해 문항은 다른 청소년들로 부터 ‘심한 놀림 또는 조롱당하기’, ‘집단따돌림(왕따) 당하기’, ‘폭행(심하게 맞기)’, ‘협박당하기’, ‘돈 또는 물건 빼기기(빼앗기기)’, ‘성폭행 또는 성희롱’, ‘심한 욕설’ 등 7개 항목의 피해를 당한 경험의 유무이다.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에서는 각 피해경험 여부에 따라 ‘있다=1’, ‘없다=2’ 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이 응답결과를 ‘있다=1’, ‘없다=0’ 으로 변환하여 적용하였고, 총 7가지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을 합산한 것을 집단 괴롭힘 피해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피해 수준은 피해 경험을 한 가지도 경험하지 않으면 0점, 1개 경험은 1점, 2개 경험은 2점으로 총 7개 문항으로 7점까지 점수가 제공되어 0점에서 7점까지 구성하였다. 집단 괴롭힘 피해 변인에 대한 신뢰도(Cronbach α) 분석 결과, .703~.877로 대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내적일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라. 학업성취 척도

본 연구에서 학업성취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의 초4 패널 3차년도(2012년), 4차년도(2013년) 및 5차년도(2014) 자료를 활용하였다. 학업성취란 학교교육을 통해 습득한 학습결과의 종합으로 인지적 영역의 학습결과와 비 인지적 영역의 학습결과를 포함한다. 학업성취 문항은 지난 한 학기 동안 전반적인 성적에 대한 만족도를 사용하였으며,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점,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2점, ‘만족하는 편이다’ 3점, ‘매우 만족한다’ 4점까지로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들은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학업성취 변인에 대한 신뢰도(Cronbach α) 분석 결과, .677~.885로 대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내적일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마. 학교적응 척도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민병수(1991)의 척도를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의 초4 패널 3차년도(2012년), 4차년도(2013년) 및 5차년도(2014)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학교적응에 사용된 척도의 원척도는 문선보(1989)의 학교생활적응 척도와 이상필(1990)의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민병수(1991)가 초등학생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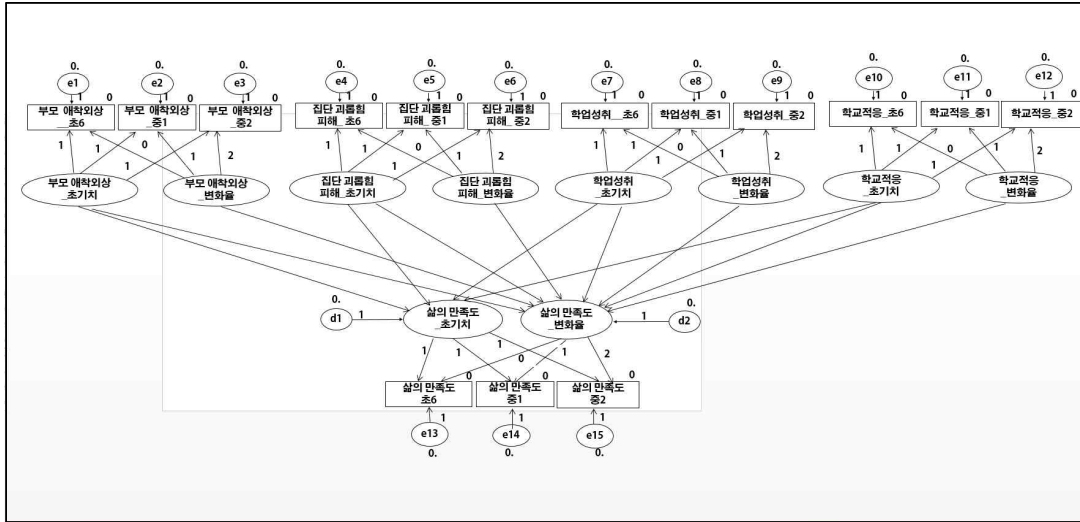
으로 제작한 것으로 학교행사 관련문항(5문항)을 제외한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문항들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김지경·백혜정·이계오, 2010). 학교적응 하위영역은 학습활동 5문항, 학교규칙 5문항, 교우관계 5문항, 교사관계 5문항으로 구분되고, 총 20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까지 Likert식 4점 척도이며, 5번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한다’, 14번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문항은 역채점하였다.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교적응 변인에 대한 신뢰도(Cronbach α) 분석 결과, .612~.891로 대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내적일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4> 학교적응 척도

변인	문항수	Cronbach α			
		초 6(w3)	중 1(w4)	중 2(w5)	
학교 적응	학습활동	5	.778	.791	.783
	학교규칙	5	.821	.830	.798
	교우관계	5	.712	.722	.767
	교사관계	5	.899	.876	.877

3. 연구모형

청소년기 (초 6~중 2)까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을 구성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 잠재성장 모형

4. 자료 분석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 변화에 그 영향요인들의 영향력이 종단적으로 어떠한지 탐색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자료를 토대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여 종단적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판단기준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모형의 적합도 판단기준

지 수	수용기준
Chi-square	$p > .05$ ($p < .05$ 일 경우 다른 적합도지수 평가)
절대적합지수	3이하 (케이스수의 영향으로 3이상인 경우 다른 적합도지수 평가)
RMSEA	.1~.08 보통, .08~.05 양호, .05이하 좋음
중분적합지수	.90이상
TLI	.90이상

출처: 김대업(2009), 김계수(2009)를 재구성

Ⅲ.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연구가설 검증을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 4패널 자료의 3차년도(초등학교 6학년)부터 5차년도(중학교 2학년)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와 그 영향요인들의 변화양상분석,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의 초기치와 변화율간의 관계를 서술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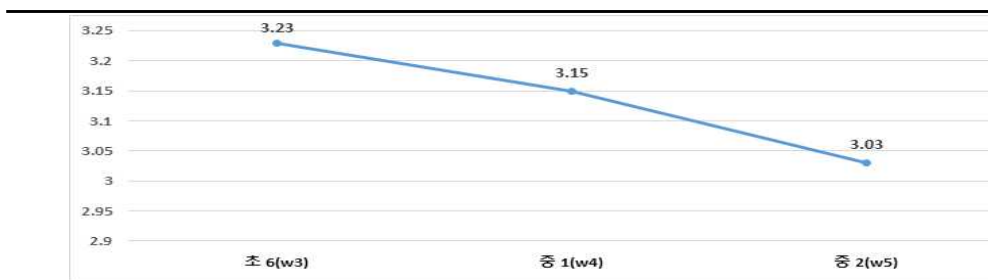
1.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와 영향요인의 변화양상 및 초기치와 변화율간의 관계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애착외상, 집단 괴롭힘 피해,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의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양상, 그리고 이에 대한 개인차가 있는지를 초기치와 변화율간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 변화양상 및 초기치와 변화율간의 관계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 변화양상에 대한 모형 적합도를 결정하기 전에 삶의 만족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양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졌다.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청소년 전환기 삶의 만족도 변화양상



무변화모형은 각 시점에서 측정된 변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된 모형으로 초기값의 평균과 분산만을 추정할 수 있다. 반면, 선형변화모형은 각 시점에서의 변화가 일관성 있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선형변화모형을 잠재성장모형이라 한다. 즉, 절편과 기울기를 통해 구한 변수의 값이 1차 함수일 때를 선형변화모형이라고 한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잠재성장모델링에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일반적으로 절대적합지수 계열인 χ^2 검증, RMSEA와 증분적합지수 계열인 NFI, CFI 등을 사용한다. NFI, CFI, TLI(NNFI)는 .9 이상이면 모형에 대한 수용이 가능하고 RMSEA는 .05 이하이면 모형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김계수, 2009). χ^2 검증은 구조방정식모형 개발 초기에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이었다. 이 검증은 $(F \times (\text{표본크기}-1))$ 의 값을 통해 결정되므로 표본크기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표본이 커질수록 이 값도 커져 영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한편, Q값(카이제곱/자유도)은 자유도 증감에 따른 χ^2 자료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비율이 1에 가까울수록 제시된 모형과 자료 사이에 높은 적합도를 나타낸다(김계수,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과 명확한 해석기준이 확립된 적합도 지수를 주로 사용하여 판단하였다.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의 변화모형 적합도는 <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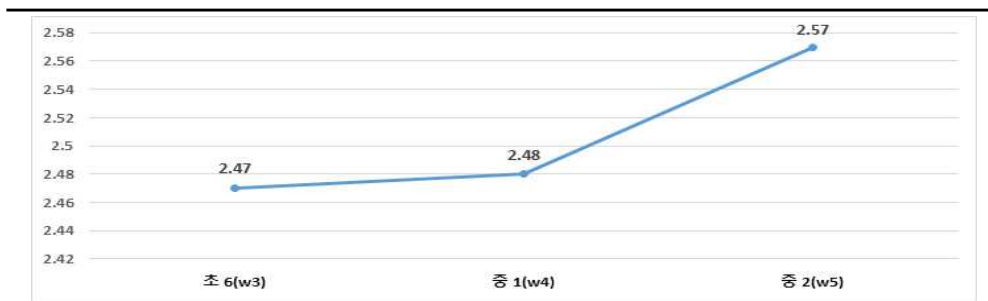
<표 7>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의 초기치와 변화율간의 관계

변인	모형	적합도 지수항목						초기치(I)		변화율(S)		
		χ^2	df	p	Q (= χ^2 /df)	TLI	CFI	RMSEA	평균	분산	평균	분산
삶의 만족도	무변화	243.221	6	.000	49.566	.987	.988	.038	3.23***	.17***		
	선형변화	22.670	3	.000	7.860	.967	.938	.031	3.36***	.27**	-.21***	.09***

나. 부모 애착외상 변화양상 및 초기치와 변화율간의 관계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3년간 부모애착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했다. 변화양상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부모 애착외상의 변화양상



부모 애착외상은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변화모형으로 적용시켜 모형 간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 모형 모두 χ^2 값이 수용범위를 벗어났다. χ^2 값은 학생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용을 판단하기는 어려워 TLI, CFI, RMSEA 등 증분적합지수로 모델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무변화모형을 적용한 결과 TLI=.987, CFI=.988, RMSEA=.038 선형변화모형에 적용시킨 결과 TLI=.967, CFI=.938, RMSEA=.031로 나타나 두 모형 모두 모델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변화모형을 적용할 때 부모 애착외상의 초기치의 평균, 분산, 선형변화율 평균은 유의한 결과가 나왔지만 변화율 분산이 -0.011($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9〉 참조). 이는 3년 동안 부모 애착외상이 다소 증가하는 변화양상을 보이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부모 애착외상 변화의 개인차는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의 두 가지 모형 간 적합도를 비교 판단한 결과 청소년기 부모 애착외상 변화양상은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모두 적용된다. 또한, 초기치의 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변화율의 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부모 애착외상의 초기치는 개인차가 있으나 변화율에는 개인차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애착외상의 초기치가 삶의 만족도 변화에 중단적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변화모형 추정으로 규명하는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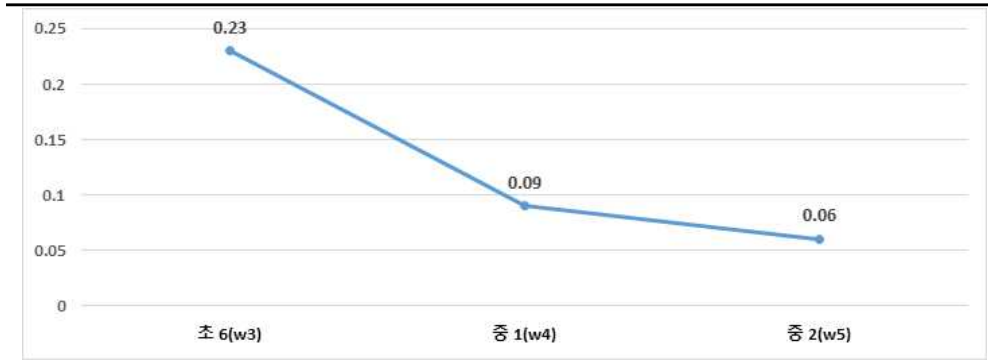
<표 9> 부모 애착외상의 초기치와 변화율간의 관계

변인	모형	적합도 지수항목						초기치(I)		변화율(S)		
		χ^2	df	p	Q (= χ^2/df)	TLI	CFI	RMSEA	평균	분산	평균	분산
부모 애착 외상	무변화	125.877	6	.000	19.474	.976	.954	.088	2.508***	.036***		
	선형변화	23.096	3	.000	7.699	.922	.941	.053	2.461***	.038***	.097** *	-.011

다. 집단 괴롭힘 피해 변화양상 및 초기치와 변화율간의 관계

집단 괴롭힘 피해는 시간이 지나면서 낮아졌다. 변화양상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집단 괴롭힘 피해의 변화양상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3년간 집단 괴롭힘 피해는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 모형, 이 두 모형에 적용시켰다. 두 모형 모두 χ^2 값과 RMSEA 값 등 절대적합지수로 모델 수용을 판단하기는 어려워 TLI, CFI 등 증분적합지수로 모델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무변화모형을 적용한 결과 TLI=.976, CFI=.954로 모델 수용에 적합하였다. 선형변화모형에 적용시킨 결과도 TLI=.922, CFI=.941로 모델이 적합한 것을 나타냈다. 집단 괴롭힘 피해의 변화모형은 무변화모형과 선형모형 두 가지 모두 수용가능하다. 따라서 청소년기 3년간 집단 괴롭힘 피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변화양상을 보인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표 11> 참조).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3년 동안 집단 괴롭힘 피해의 감소하는 변화양상에서 초기치와 변화율에는 개인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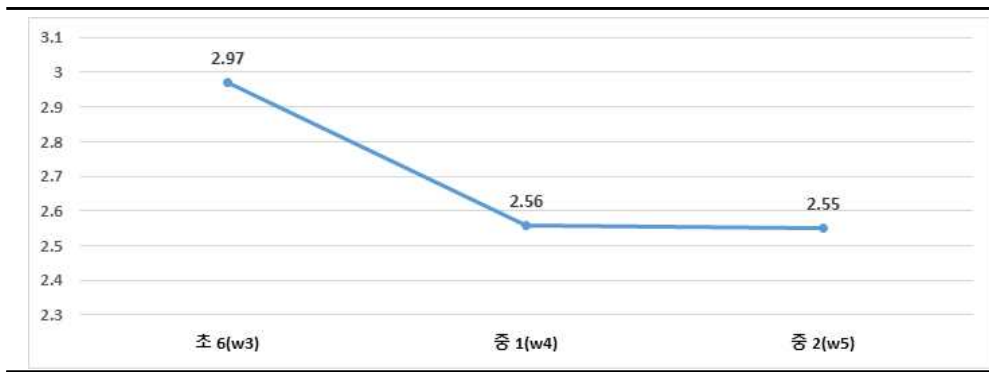
<표 11> 집단 괴롭힘 피해의 초기치와 변화율 간의 관계

변인	모형	적합도 지수항목							초기치(I)		변화율(S)	
		χ^2	df	p	Q (= χ^2/df)	TLI	CFI	RMSEA	평균	분산	평균	분산
집단 괴롭힘 피해	무변화	1339.126	6	.000	223.188	.912	.923	.306	.129***	.041***		
	선형변화	401.117	3	.000	133.706	.917	.921	.236	.209***	.226***	-.164***	.167***

라. 학업성취 변화양상 및 초기치와 변화율간의 관계

학업성취 변화양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낮아졌다.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학업성취 변화양상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3년간 학업성취는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 이 두 모형에 적용시켰다. 두 모형 모두 χ^2 값과 RMSEA 값 등 절대적합지수로 모델 수용을 판단하기는 어려워 TLI, CFI 등 증분적합지수로 모델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무변화 모형에 적용시킨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TLI=.912, CFI=.923로 적합하였고, 선형변화모형에 적용시킨 결과도 TLI=.917, CFI=.921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기 3년간 학업성취의 감소하는 변화양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표 13> 참조) 3년 동안 학업성취의 초기치와 변화율에는 개인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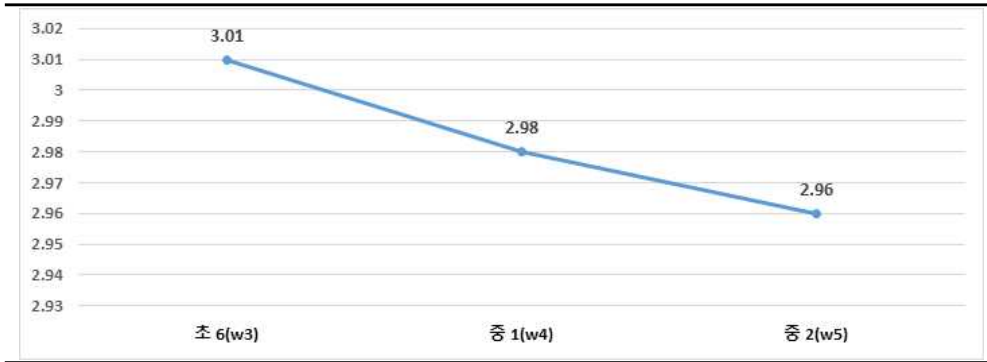
<표 13> 학업성취의 초기치와 변화율간의 관계

변인	모형	적합도 지수항목						초기치(I)		변화율(S)		
		χ^2	df	p	Q (= χ^2/df)	TLI	CFI	RMSEA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학업성취	무변화	596.446	6	.000	99.408	.963	.978	.203	2.699***	.179***		
학업성취	선형변화	146.810	3	.000	48.937	.951	.975	.142	2.902***	.156***	-.418***	-.024**

마. 학교적응 변화양상 및 초기치와 변화율간의 관계

학교적응 변화양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향했다. 변화양상은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학교적응의 변화양상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3년간 학교적응은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 이 두 모형에 적용시켰다. 두 모형 모두 χ^2 값과 RMSEA 값 등 절대적합지수로 모델 수용을 판단하기는 어려워 TLI, CFI 등 증분적합지수로 모델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무변화 모형에 적용시킨 결과 TLI=.963, CFI=.978, 선형변화모형에 적용시킨 결과는 TLI=.951, CFI=.975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변화모형으로 무변화모형이나 선형변화모형 모두 수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청소년기 3년간 학교적응의 감소하는 변화양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표 15> 참조).

<표 15> 학교적응의 초기치와 변화율간의 관계

변인	모형	적합도 지수항목						초기치(I)		변화율(S)		
		χ^2	df	p	Q (= χ^2/df)	TLI	CFI	RMSEA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학교	무변화	99.733	6	.000	16.622	.922	.922	.081	2.987***	.081***		
적응	선형변화	49.191	3	.000	16.397	.923	.962	.080	3.013***	.100***	-.054***	.031***

바. 청소년기(초6 ~ 중2) 삶의 만족도와 영향요인간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 분석

학업성취 초기치는 청소년 전환기 삶의 만족도 초기치에 .264 만큼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교적응 초기치는 청소년 전환기 삶의 만족도 초기치에 학업성취 초기치 보다 더 높은 수치인 .406 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경로는 모두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 < .001$). 이를 통해 청소년 전환기에 초기 학업성취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학교적응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전환기에는 초등학교를 벗어나 새로운 환경의 중학교에 잘 적응하는 학교적응의 문제가 성적을 높이고 학업적 성취를 이루는 문제보다도 이 시기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6〉 청소년 전환기 삶의 만족도의 경로계수

경로	표준화계수(S.R.)	표준오차(S.E.)	회귀계수(C.R)	t
부모 애착외상 초기치 → 삶의 만족도 초기치	.037	.078	-1.432	-112
부모 애착외상 초기치 → 삶의 만족도 변화율	-.611	.659	-.812	-535
집단 괴롭힘 피해 초기치 → 삶의 만족도 초기치	-.075	.078	-1.432	-112
집단 괴롭힘 피해 초기치 → 삶의 만족도 변화율	-.079	1.396	-.031	-.043
집단 괴롭힘 피해 변화율 → 삶의 만족도 변화율	1.598	4.831	.528	2.553
학업성취 초기치 → 삶의 만족도 초기치	.264	.056	6.224	.351***
학업성취 초기치 → 삶의 만족도 변화율	-.072	.574	-.061	-.035
학교적응 초기치 → 삶의 만족도 초기치	.416	.080	9.397	.751***
학교적응 초기치 → 삶의 만족도 변화율	.041	.539	.049	.027

*** $p < .001$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와 영향요인들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양상을 확인하고,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애착외상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기 3년 동안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미 하게 증가하는 변화양상을 보였고, 청소년기 3년간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대 등 부모 애착외상이 감소한다고 하는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임종필, 2016; 조예진 외, 2015).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므로 가정 에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이에 따라 부모와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부모 애착외상

의 영향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교가 전이되는 청소년기에는 학업 비중과 부모의 학업기대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부모 애착외상이 발생하고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집단 괴롭힘 피해는 초등학교 6학년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미 하게 감소하는 변화양상을 보인다. 또한, 청소년기 3년간 집단 괴롭힘 피해 초기치와 변화율에는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집단 괴롭힘 피해가 중학교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나 학교에서 괴롭힘이나 폭력이 자연명화 됨에 따라 집단 괴롭힘 피해도 중학교보다 오히려 초등학교에서의 피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학업성취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미 하게 감소하는 변화양상을 보였다. 또한, 청소년기 3년간 학업성취 초기치와 변화율에는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갖는 의미는 학업성취가 초등학교에서 보다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더욱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본격적인 입시 위주 학업환경으로 인해 학업성취가 중요해지는 반면 청소년기 학업성취도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말해준다.

넷째, 학교적응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미 하게 감소하는 변화양상을 보였다. 또한, 청소년기 3년간 학교적응 초기치와 변화율에는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때와는 확연하게 달라지고 복잡해진 중학교의 학교규칙, 학습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 등으로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은 어려운 발달과제로써 적응력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진학 대비 진로 및 학교생활 상담 및 교육 중이 필요하다.

다섯째, 청소년기 부모 애착외상, 집단 괴롭힘 피해,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이 삶의 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은 학업성취 초기치와 학교적응 초기치가 각각 삶의 만족도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뿐이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부모 애착외상, 집단 괴롭힘 피해 등 부모나 또래와의 부정적인 관계로 인한 요인들보다는 학교장면에서의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초6~중2) 삶의 만족도에 영향요인간 다변량 잠재성장 분석결과는 초기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학교 적응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기에는 학업성취를 포함한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중등학년의 생애주기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 연구를 통해 분석한다면,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명희, 유영란, 유지원 (201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나타난 고등학생의 지각된 교사태도, 학습태도, 학업성취도, 학교생활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규명. **교육과학연구**, 45(1), 181-203.
- 계선자, 이정우, 김명자, 박미석, 유을용 (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실태 및 학교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2), 57-72.
- 김세원 (2009). 지역사회 특성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28(4), 101-135.
- 김신영, 백혜정 (2008). 한국청소년행복지수 개발연구. **한국사회학**, 42(6), 140-173.
- 김영민, 임영식 (2013).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잉적 양육, 자아탄력성, 학교 적응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2), 343-366.
- 김윤희, 김현숙 (2016).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양상과 성별 및 애착 관계의 영향. **상담학 연구**, 17(3), 337-354.
- 김재엽, 이근영 (2010).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7(5), 121-149.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지경, 송현주 (2009). 조기은퇴남성의 주관적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3), 31-43.
- 김지현, 조윤주, 한준아 (2012).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삶의 만족도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보건연구회**, 32(3), 33-60.
- 박병선, 배성우 (2012). 대인관계와 학교성적이 학교청소년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 및 학교급별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14(3), 215-238.
- 박영신, 김의철 (2003).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0(1), 139-165.
- 박정임, 이금진 (2012).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2), 33-62.
- 선우현정, 이희선 (2014).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학교적응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1(1), 149-166.
- 손석한, 노경선, 허묘연 (2001).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부모양육행동에 관한연구. **신경정신연구**, 40(4), 605-615.
- 엄선영, 이강이 (2012).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과 학교적응. **한국가정교과**

- 육학회지, 24(3), 89-100.
- 김영민, 임영식 (2013).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잉적 양육, 자아탄력성, 학교 적응의 구조적 관계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2), 343-366.
- 정순돌, 이선희 (2011). 노인 삶의 만족도 변화: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3개년도 (1994, 2004, 2008년) 결과비교. **한국노년학**, 31(4), 1229-1246.
- 정옥분 (2016). **발달심리학(개정판)**. 서울: 학지사.
- 정윤화, 봉초운, 홍세희 (2018).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25(1), 181-210.
- 조성연, 김혜원, 김민 (2011). 생태학적 맥락에 따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9(3), 87-98.
- 조아미, 신태수 (2012).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청소년활동 참여 수준의 유형과 특성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3(2), 161-184.
- 조윤숙, 이경남 (2010).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가족환경 및 학교생활 부적응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8(8), 27-37.
- 최수미, 김동일, 최선, 고유림, 박정은, 신예지, 최희철 (2012). 사회적 기술, 따돌림 피해경험, 내면화 문제행동간의 인과적 모형 탐색. **상담학연구**, 13(1), 135-148.
- 최유선·손은령(2015). 청소년이 지각한 대인관계 양상,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의 관계: 성별, 학교급별 비교. **상담학연구**, 16(2), 233-247.
- 최희철, 황매향 (2011). 초등학생의 학업성취와 삶의 만족의 종단적 관계. **한국초등교육**, 22(2), 75-90.
- Allen, J., & Miga, E. M.(2010). Attachment in adolescence: A move to the level of emotion regula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7(2), 163-172.
- Arseneault, L., Bowes, L., & Shakoor, S. (2010). Bullying victimization in youths and mental health problems: 'Much ado about nothing' ? *Psychological Medicine*, 40(05), 717-729.
- Ashley D., Lewis, E., & Scott H. (2011). Life satisfaction and student engagement in adolesc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3), 249-262.
- Bettina, F., & Csaba, H. (2010). Parent, school and peer-related correlated of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Children and Youth Service Review*, 34(10), 1478-1482.
- Bryant, B. K.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2), 413-425.
- Carmel, P., & John, M. (2009). Very happy youth: benefits of very high life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0(3), 519-532.
- Carprara, G. V., Barbarnelli, C. B., Bandura, A., & Pastorelli, C.(2001). Self-efficacy beliefs as

- shapers of children's aspirations and career trajectories. *Wiley Researcher Academy*, 72(1), 187-206.
- Cicchetti, D., & Toth, S. L. (2005). Child maltreatment.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5, 409-438.
- Daniel, S. (2014). Life satisfaction in junior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Hong Kong: A 3-year longitudinal stud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7(3), 777-794.
- Danielsen, A. G., Samdal, O., Hetland, J., & Wold, B. (2009). School-related social support and students' perceive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2, 303-320.
- Eva O., Kimberly A. S., & Bruno D. Z. (2011). Life satisfaction in early adolescence: Personal, neighborhood, school, family, and peer influences.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40(7), 889-901.
- Fiorezo, A., Susanna, J., Emma, C., Anglea, T., & Roberto, T., (2015) Adult attachment style as mediator between childhood neglect/abuse and adult depression and anxiety.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1, 796-805
- Fujita, F., & Diener, E. (2005).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58-164.
- Goswami, H. (2012). Social relationships and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7(3), 575-588.
- Kirkcaldy, B. D., Siefen, G., Surall, D., & Bischoff, R. J. (2004). Predictors of drug and alcohol abuse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2), 247-265.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Wiley Research Academy*, 60(3), 1103-1118.
- Lyons, M. D., Huebner, E. S., Hills, K. J., & Horn, M. L. (2013). Mechanism of change in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1, 587-598.
- Medly, M. L. (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65 years and older: A casual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31(4), 448-455.
- Seeds, P. M., Harkness, K. L., & Quilty, L. C. (2010). Parental maltreatment, bullying, and adolescent depression: Evidence for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9(5), 681-692.
-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Free Press/ Simon and Schuster.
- Simpson, T. L., & Miller, W. R. (2002). Concomitance between childhood sexual and physical abuse and substance use problems: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2*, 27-77.
- Smith, J. T., & Sharp, A. M. (1994). *School bullying: Insights and perspectives*. NY: Routledge.
- Sourander, A., Jensen, P., Ronning, J. A., Niemelann, S., Helenius, H., Sillanmannki, L., et al. (2007). What is the early adulthood outcome of boys who bully or are bullied in childhood? The Finnish "From a Boy to a Man" study. *Pediatrics, 120*(2), 397-404.
- Suldo, S. M., & Huebner, E. S. (2004). The role of lif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tive parenting dimensions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Social Indicators Research, 68*(1-2), 165-195.
- Susan, M. S., Dorothy L. E., & Scott, A. N. (2011). *Bullying prevention & intervention. Realistic strategies for schools*. NY: The Guildford Press.
- Van der Kolk, B., & Courtois, C. A. (2005). Editorial comments: Complex developmental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8*, 385-388.
- Veenhoven, R. (1994). Is happiness a trait? *Social Indicators Research, 32*(2), 101-160.
- Veenhoven, R. (1998). *Bibliography of happiness: 2472 contemporary studies of subjective appreciation in life*. Rotterdam Netherlands: RISBO.
- Young, M. E., Clearman, R., Hart, K. A., Rintala, D. H., Fuhrer, M. J. (1992). Relationship of life satisfaction to impairment, disability, and handicap among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y living in the community. *The Institute for Rehabilitation and Research, 73*(6), 552-227.